

‘지구 구하기’를 위한 작은 날갯짓

최 송 목 경영컨설턴트 · 칼럼니스트

신문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코웃음부터 쳤던 나다. 무엇보다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페트병 하나 버린다고 이 거대한 지구에 티도 안 날 것 같았고, 페트병 하나 더 줍는다고 지구환경에 그리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다.

일단 구호 자체가 거대하다. ‘지구 구하기’, ‘녹색생활’, ‘탄소중립’ 등의 단어가 너무 거리감이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도 아니다. ‘이런 거대 담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와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별세계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들은 아마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일 테고 가족들은



두루 편안할 것이며 다른 걱정거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 남은 시간과 여유로 사회, 국가, 인류를 향한 담대한 뜻을 품었을 거야’라는 생각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봐도 그런 큰일, 대승적인 일들은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무슨 특사가 할 일쯤으로 보인다. 조금 작게 잡아도 국회의원, 장관, 사회 운동가쯤은 되어야 이런 이야기가 무리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나처럼 한 몸 추스르기에다 벅차고, 가족 챙기기도 바쁜 일개 시민이 그런 거대 담론을 다루다니 한마디로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에서 말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을 비우러 쓰레기 집하장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플라스틱, 비닐, 깡통, 유리병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난장판이었다. 아마도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았다. 종류별로 분리수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런 질서를 흐뜨린 것이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 교양이 없나? 1분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자기 혼자 편하자고 이렇게 버리다니...’

이렇게 탄식하고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조용히 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뒤가 조금 찝찝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나도 내 쓰레기를 보태고 그냥 돌아서 오다니, 미필적 고의 아닌가? 나도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렇다면 분리수거가 안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고의로 지저분하게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들이 정리하지 않으니 덩달아 어쩔 수 없이 그리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느 통에 어떻게 정리할 바를 잘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라벨을 붙여보면 어떨까? 지금은 아무 표시도 없는 통마다 각각 라벨이라도 붙여 놓으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바로 문방구에 가서 프린트하고 빗물에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 코팅도 했다. 이를 지켜본 아내가 나에게 “반장이 알아서 할 일인데, 오지랴”이라고 한다. 그래! 오지랴이라도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분리수거만 된다면, 큰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오지랴이 대수냐 싶었다. 우리 빌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원인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런 지저분하고 짜증나는 상태를 견뎌야 할 것이다.

라벨을 붙이고 나서 나는 쓰레기장을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결과가 궁금해서이다. 그다음 날, 나비효과인가? 나의 작은 날갯짓이 통한 걸까? 쓰레기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주민들이 라벨에 써진 대로 쓰레기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작은 부분에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작은 동기에도 크게 움직이는 것 같다. 우연히 마음먹은 라벨 붙이기라는 작은 동작 하나로 ‘녹색생활 실천’이라는 거대 담론에 동참했다. 커다란 빌딩 모퉁이에 작은 스티커 하나 붙이고 묻어가는 기분이다. 그래도 웬지 ‘지구 구하기’ 일원이 된 것 같아 스스로 대견스럽다. ❀